

# ‘사드 이후 단절’ 中 하늘길 다시 열린다

### 전남도와 고위급 회담서 무안~장시성 전세기 재개 협의

### “관광 활성화 도모” 제안에 긍정 답변...조만간 실무협의 전망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은 23일 도청 집견실에서 김영록 지사와 이련홍 성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드 사태 이후 단절된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장시성 하늘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오후

전남을 방문한 이련홍(易煉紅) 중국 장시성(江西省) 성장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무안~장시성 간 전세기 운항 재개를 협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을 재개해 전남의 해양관광과 장시성의 풍경명승구(알짜배기 풍경)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두 지역 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련홍 성장은 “전세기가 다시 운항된다면 장시성의 많은 주민들이 전남의 아름다움과 문화, 앞선 기술을 접할 수 있는 등 두 지역 간 더욱 돈독한 관계가 형성될 것 같다”고 답변, 조만간 실무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안~장시성 간 전세기는 지난 2016년까지 2년간 35회 운항, 두 지역 간 관광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사드 사태 이후 중단됐

다. 이날 고위급회담에서는 또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기술 교류, 통합의료 발전을 위한 한의학 대학과 민간의 협력 강화 및 청소년 교류를 통한 분야별 인재 양성 등 관광·농업·의학·문화예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또한 2020년 전남에서 장시성을 방문, ‘전라남도 주간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장시성 주간행사는 문화교류, 예술단 공연, 특산물 전시, 관광홍보 등을 내용으로 2년마다 상대 지역에서 열린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번 회담에서 전세기 재개뿐만 아니라 통합의학과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학·민간 의료기관의 교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2020년 장시성에서 개최기로 한 전라남도 주간행사에서는 전남의 가치를 중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동구, 방송인 홍석천이 들려주는 장사이야기

광주 동구가 27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7대 상권 컨설팅 사업 일환으로 ‘홍석천의 장사이야기’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구 7대 상권 컨설팅 사업’은 방송인 홍석천 씨의 강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해 상인·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연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그 첫 번째로 개최되는 이날 강의는 서울 이태원에서 레스토랑, 바(BAR) 등 요식사업을 운영하는 CEO이자 엔터테이너 홍석천 씨를 초청해 사업을 하며 겪었던 경험과 창업 성공 스토리, 경리단길의 사례로 본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 서구, 한혈 및 장기기증희망 등록 행사

광주 서구는 2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공동으로 ‘한혈 및 장기 기증희망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인정적인 혈액수급 및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생명나눔을 실천코자 마련된 것.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구청 공무원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혈은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 참여가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남구, 생태문화 분야 전문 활동가 양성

광주 남구는 생태문화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환경교실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019 환경교실 생태문화 지원 활동가 양성 교육’에 함께 할 수강생 모집이 진행된다.

양성 교육은 오는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론 교육 및 현장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생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가운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서 교육 수료 후 생태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북구, 경험과 전문성 갖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광주 북구가 신중년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은퇴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북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9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서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7천 800만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국제레크리에이션사회적협동조합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확보한 국비 7천 8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천 700만원을 들여 중장년층 전문 인력 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김삼호 광산구청장, 평동산단 기업과 릴레이 간담회

24일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평동산단 수출용 포장 전문업체 (주)인팩, 스프링클러 제작업체 (유)태호를 방문해 기업 애로·고충 사항을 듣고, 산단 관리와 업체 직원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산단 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의 컨설팅을 비롯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 기업들이 애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5월부터 매월 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고, 이번까지 총 11개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애로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강 이남 뚫렸다..전남도 방역 ‘비상’

### 태풍 인한 폭우로 매몰지 침출수로 확산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발병 이후 지난 23일에는 한강 이남인 김포까지 발생해 전남도가 비상이 걸렸다.

585곳의 양돈농가를 보유한 전남도는 24일 오후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방역강화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이기로 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파주에서 첫 양성판정 이후 연천과 김포, 또 다시 파주까지 추가로 발생해 4곳으로 늘었다.

또한 지난 21일 태풍 ‘타파’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인근 하천 수위가 상승하거나 매몰지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ASF 확산도 우려된다.

전남도는 태풍 북상 이후 시·군 및 유관기관을 총동원해 확산

관련 시설과 양돈농가에 소독을 실시하고 생석회를 재살포하고 있다.

또 여수와 나주, 구례, 화순, 영광, 장성 등 양돈밀집단지 6개소에 농장초소를 운영하고 이동통제 초소를 28개소로 확대했으며, 거점소독시설 22개소를 운영 중이다.

농협중도사업소와 협력농장의 돼지에 대해 타 시·도 반출을 봉쇄하고, 타 지역 돼지 및 돼지 고기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공무원 전담제 운영으로 외국인 이 근로하는 양돈장의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모임을 당분간 금지시켰다.

아울러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예비비 22억원을 확보, 지원하고 생석회 차단벨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급재난기금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청정 전남지역 전염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섭 시장 “한전공대 설립 반대, 지역갈등 조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유한국당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 움직임에 대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 17일 한전의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막고 한전공대 운영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는 한전공대가 글로벌 에너지연구중심 특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광주·전남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광주·전남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현안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전공대가 계획대로 2022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